

## 대전 엑스포 '93(2)

###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엑스포(EXPO)는 그 준비에 있어 고도의 기술능력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까닭에 선진국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 최초의 엑스포를 준비하는 지금,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를 새롭게 짚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

#### 1851년 런던박람회~1893년 시카고박람회

세계 최초의 엑스포는 기원 전 5세기경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스페로스왕이 개최한 '부의 전시'로서 국력 과시를 통해 인근 국가의 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연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엑스포는 영국의 알버트공에 의해 창시된 런던박람회(1851년)가 세계 최초의 엑스포이다.

흔히 수정궁 박람회라고 부르는데, 엑스포 회장의 면적은 3만2천평, 참가국은 20개국, 개최기간은 23주였고, 관람객은 6백만명이 넘었다.

이 엑스포는 인류가 19세기에 이룩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당시 영국 여왕은 1천파운드의 기부금을 냈고 엑스포 개최를 제창한 알버트공은 5백파운드를 냈으며, 기부금 총액은 무려 7만5천파운드에 달했다.

입장료 수입만도 42만3천7백9십7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박람회장인 수정궁은 그 당시 영국의 국제적 지위와 기술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30만장의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관차, 선박용엔진, 수압식 인쇄기, 동력직기, 절연 재료로 덮은 전선 등 수많은 기계, 수공업품, 조각, 원료 등등 세계의 발명품들이 다양하고 화려하게 전시되었다. 런던박람회는 자유무역시대를 예고한 것이었고 20세기의 과학문명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 두 번째로 열린 1853년 뉴욕(미국) 박람회는 회장 면적 1만6천평에 관람객수는 1백2십5만명이었고, 유럽과 미주간의 문화 교류에 공헌하였다.

세 번째로 열린 1855년의 파리(프랑스) 박람회는 회장 면적 5만평에 관람객 수가 5백여만명이었고 미술전과 일용품 전시가 특색으로 꼽힌다.

1862년의 런던박람회는 교육 부문의 전시가 특색이고 1867년의 파리박람회는 참가국별로 독립전시관을 사용한 최초의 엑스포였다.

1873년의 빈(오스트리아)박람회는 새로운 건축 설계로, 187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필라델피아박람회는 전자기 제품으로, 그리고 1878년 파리박람회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엑스포로서 에펠탑 건설로 유명하다.

1893년 시카고(미국)박람회는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 행사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한 엑스포였다. 그 당시 우리는 도자기, 갑옷, 활과 화살 등을 출품하였다.

### 1900년 파리박람회~1951년 런던박람회

20세기 최초로 1900년에 개최된 파리박람회는 회장 면적이 41만평에 6개월 동안 무려 4천7백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여든 대규모 엑스포였다.

엑스포 때문에 국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러 유럽 국가의 수도에서 파리까지 특별여객선이 운행되었는데, 여권 발급도 생략되었다. 이 박람회에선 움직이는 보도, 지하철 등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1940년에 개최된 세인트루이스(미국)박람회는 152만평의 회장에 1천9백7십만명의 관람객이 모여든 엑스포였다. 비행선과 무선통신이 첫선을 보였다.

1910년의 브뤼셀(벨기에)박람회는 회장 규모가 2십5만평으로서 관람객 수는 4백2십만명이었다. 전체 회장 가운데 5만여평의 대지 위에 각국의 전시관을 비롯한 관련 건물들이 들어섰고 세계의 진귀한 명화, 명품들을 비롯해서 참가국들이 자랑하는 온갖 전시물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대화재로 엑스포 회장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브뤼셀박람회는 엑스포 사상 최악의 박람회가 되었고, 인류의 문화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게 되었다.

그 후, 1915년에는 파나마 운하 개통 기념으로 샌프란시스코(미국)에서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1926년에는 미국 독립 150주년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미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933년에 개최된 시카고(미국) 박람회에는 회장 규모 52만평에 2천2백5십7만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이 때의 시카고박람회는 엑스포 사상 최초로 주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다 뜻깊은 박람회였다. 시카고박람회의 주제는 '세기의 진보'였다.

그 후, 브루셀박람회와 파리박람회를 거쳐 1939년에 미국에서 열린 뉴욕박람회의 주제는 '내일의 세계'였다. 박람회장의 총 규모가 1백

4십9만평이나 되었고, 관람객 수도 4천5백만 명에 달했다.

이 박람회에선 나중에 20세기의 생활문화를 바꾸어 놓은 나일론과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발명품도 환경과피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20세기의 숙제가 되고 말았다.

1951년에 열린 런던박람회는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딛고 새로운 영국의 미래상을 제시한 엑스포로서 1천 8백만명의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 주었다.

### 1964년 뉴욕박람회~1984년 뉴올리언즈박람회

뉴욕의 탄생 3백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1964년 뉴욕박람회는 5천만명을 넘어서는 놀라운 관람객 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큰 성황을 이루었고, 세계 최대 도시로서의 뉴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우선 80개국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참가국들이 37개의 전시관에서 자국의 문화를 선보였으며, 3만여대의 수용능력을 갖춘 주차장의 이용 차량들을 일렬로 늘어세울경우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돌 수 있었고,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먹어치운 핫도그의 숫자는 자그마치 1억 4천만개나 되었다.

박람회를 압도했던 것은 외형상의 규모만이 아니었다. 번쩍이는 황금빛 구조물, 생각하고 말하고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 고색창연하고 이국적인 고대의 유물들,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천재 예술가들의 걸작들. '박람회'하면 흔히 연상되는 특별하고 진기한 눈요기 거리가 그 어느 곳, 그 어느 때보다도 현란하게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게다가 각종 차량과 에스컬레이터 등을 동원한 이동 체제와 갖가지 편의시설들은 행사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전시물들 못지 않게 우수하여 관람객들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67년의 몬트리올박람회는 캐나다 건국 1

백주년을 기념으로하여 열린 것으로, '인간과 그 환경(Man and His World)'을 주제로 했다. 캐나다인들이 이 행사의 주제로 내세운 '인간과 그 환경'은 바로 피어슨 수상이 개막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의 도전에 응전해 온 인간의 찬란한 발자취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1970년의 오사카박람회는 동경올림픽 이후 일본의 산업과 기술을 과시한 종합엑스포였으며, 아시아 최초의 의미있는 엑스포였다.

3월 14일부터 6개월 동안 계속된 오사카박람회는 77개 참가국과 6천 4백여만명이라는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당시 화폐가치로 23억 달러의 돈을 들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사카박람회가 내건 주제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였다. 이러한 주제가 정해진 경위는 주목할만 했다. 즉 진보란 서양적 개념이고 조화는 동양적 개념인데, 오사카박람회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그 실력을 발휘하여 오사카 박람회장에 수많은 미래 지향적 건물들을 세워 놓았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적극적인 참가국이었어서, 한국관의 7백 29평 대지 위에는 고 김수근씨가 설계한 현대적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박람회장의 명물로 꼽히는 것은 그 중에는 일본의 조각가 타로 오카모도가 제작한 '태양, 젊음, 모성의 탐'이라고 이름 붙여진 1백 98 피트 높이의 탐이 있었다.

1974년의 스포케인박람회는 미국의 독립 2백주년을 기념하여 '공해 없는 전진'을 주제로 내걸고 열렸다.

한편 '하천문명의 세계' 즉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맑은 물을 주제로 열린 1984년 뉴올리언즈박람회는 인간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끼쳐 온 강과 맑은 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따라서 뉴올리언즈엑스포는 자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더

불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보는 소중한 계기였다.

### 1985년 쓰쿠바박람회~1992년 세비아박람회

미래를 향한 첨단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과학 일본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던 1985년 쓰쿠바 과학기술박람회는 3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백84일간 일간 일본 이바라기현에서 개최되었다.

쓰쿠바 연구학원도시내의 엑스포 회장에서 '인간, 주거, 환경과 과학기술'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따라 각각의 전시관이 꾸며졌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전시물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 줄을 지어 등장했다.

2천여만명의 관람객들로 대성황을 이룬 쓰쿠바엑스포는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어 여러모로 많은 성과를 남긴 성공적인 행사였다.

우선 과학기술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좋은 기회였고, 나아가 과학 신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을 한층 가속화시켰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친선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86년 밴쿠버박람회는 캐나다 횡단 철도 개통 1백주년을 기념함과 아울러 밴쿠버시승격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움직이는 인류-교통과 관련통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교통과 통신의 필요성, 교통과 통신으로 인한 가치의 변화 등 전세계가 함께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과학기술시대의 레저'를 주제로 한 1988년 브리스베인박람회는 바로 과학과 레저의 결합이라는 숙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유럽인의 호주 정착 2백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브리스베인엑스포는 주제를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서의 레저, 레저를 창조하는 과학기술, 레저와 과학기술의 미래 등으로 세분화시켜 흥미있게 구성했다.

1990년 오사카엑스포는 오사카시 발족 1백 주년을 기념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세기 최대의 종합박람회인 세비아엑스포는 1992년 4월 20일부터 6개월간 '발견의 시대'를 주제로 열려. 유럽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붐을 일으킨 바 있다.

1993년 8월 7일부터 93일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개최되는 대전엑스포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치러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 처음 참가한 이래 꼭 1백년이 되는 1993년 우리 힘으로 직접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크나 큰 긍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엑스포는 우리나라에게는 선진국 도약의 꿈을, 수많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발전의 희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신상품 수출지원 사업 안내

KOTRA에서는 업계의 신상품 개발의욕 고취 및 수출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 신상품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사업개요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획득한 상품 등 신규개발상품을 대상으로 KOTRA의 본사 및 국내, 외무역관이 E-MAIL 전산망을 활용하여 해외홍보, 바이어발굴, 카탈로그 제작, 개척자금 융자추천, 시장조사 등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함. 종합지원(TOTAL MARKETING SERVICE)의 경우 공사 각 부서가 연계한 PACKAGE사업으로 취급 가능함.

### 신상품 기준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획득한 상품
- 기존제품의 기능, 소재, 디자인 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최초 개발한 상품
- 타 업체의 제품을 모방하지 않은 창의적 아

이디어 상품

- 내수 우량상품 중 수출이 유망시 되는 제품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마케팅지원 기초자료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품카탈로그 또는 칼라사진 2매, OFFER SHEET 2부
- 홍보기사 작성용 자료(영문판 KT & B 무료기사 게재용)
  - 회사 전경 및 기업대표 칼라사진 각 2매
  - 상품특징, 회사소개 및 '93년도 수출전략 소개서 1부(국문)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참가비 : 무료(일부 서비스 유료)
- 문의 및 신청처 : KOTRA 시장개척부 수출지원2과 ☎ 551-4383/6